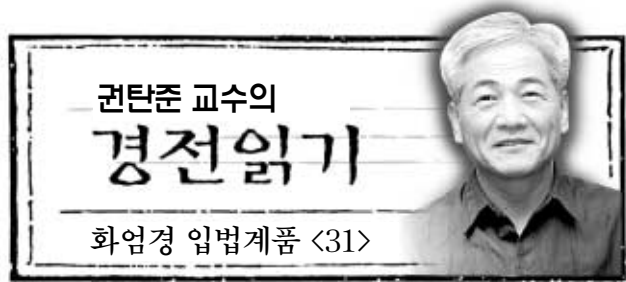


선견 비구로부터 남쪽의 명문(名聞)이라고 하는 나라의 물가에 있는 자재주(自在主) 동자를 찾아가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는 그를 찾아 나섰다. 공중에서 천룡, 건달바들이 동자가 지금 물가에 있다고 일러주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가 보니, 그는 일만이나 되는 동자에게 둘러싸여서 모래를 모아 장난하고 있었다. 선재 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두는 법을 물었다.

이에 자재주 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옛날에 문수사리동자로부터 글 쓰는 법과 산수(算數)와 모든 것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결인(結印) 등의 법을 배워서 ‘온갖 교묘한 신통지혜의 법문(一切工巧神通智法門)’에 들어갔노라. 나는 이로 인하여 세간의 글, 산수, 결인 등의 법을 알려 또 풍병, 간질, 조갈병, 귀신이 붙은 모든 병을 치료하며, 모든 건축, 약제, 농업, 공업, 상업도 잘 알아서 관리한다. 또한 중생들의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善惡)을 지어서 좋은 곳과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을 알려, 성문의 법을 얻거나 연가의 도를 얻으며 ‘온갖 지혜(一切智)’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들을 다 잘 안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이런 법을 배우게 하며, 중생을 하고 완수하게 하여 청정무구하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또한 보살의 계산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법으로 모든 세계의 갖가지 차별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분명히 다 알 수 있다. 나는 오직 이 ‘온갖 교묘한 큰 신통지혜의 광명법문(一切工巧大神通智光明法門)’만을 알 뿐이다.”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1>

자재주 동자의 법문

육근이 깨끗하여 삶도 순진무구

지혜는 중생의 이로움 가꾸는 힘

이와 같은 자재주 동자의 법문은 청정한 지계(持戒)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세간 속에서 중생을 여러가지로 이롭게 하는 법을 실천 할 수 있다.

우선 자재주 동자가 강변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온갖 깨끗치 못한 것을 끊어내지 않고 버리는 물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그가 평소 지계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동자로 소개되어 있는 것은 지계생활이 청정해서 어떠한 오염도 없기 때문에 순진무구한 동자에 비유한 것이다. 그 이름이 자재주인 것은 지혜로써 세간을 벗어나는 것과 세속에 들어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이다. 법본(梵本)에 의하면 ‘자재주’는 Indrīyavāra에서 ‘모든 인식기관이 자재하

다(諸自在)’고 하는 의미이다. 중생의 인식기관은 인식대상(경계에 의해 오염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잠깐 수행인은 계행(戒行)이 청결하여 훌륭한 삶을 자재하게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재주 동자 스스로 앞에서 “나는 문수사리 동자로부터 여러가지 법을 배워서 ‘온갖 교묘한 신통 지혜의 법문’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재주 동자가 일만이나 되는 동자에게 둘러싸여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계에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순진무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가 ‘온갖 교묘한 신통 지혜의 법문’에 들어가 세간의 서법(書法)·산수·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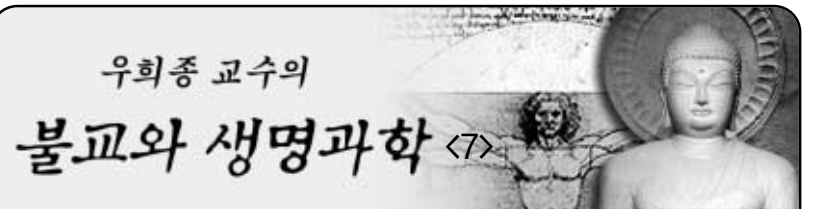
여러가지 병의 치료법·약만드는 법·각종 기술·농업과 상업·중생의 세간을 벗어나는 근거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근본 원인은 결국 모든 감각기관(六根)이 청정하여 자재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청정한 계행을 바탕으로 세간 속에서 다양하게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보살이 세간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면서 한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을 제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간의 각종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해 정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터득하고 싶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도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제대로 이룩한 사람이 많지 않은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청정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정한 삶이 불가능한 것은 인식기관이나 인식주체가 외부의 각종 경계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갖가지의 계행을 지켜서 청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행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대승보살의 대비(大畏)행은 청정하고 진실한 삶에서 꽃피어 나오는 것이다.

자재주 동자는 이와 같이 진정한 대승보살행은 청정한 지계생활이 으뜸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재주 동자의 법문을 대하면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보살의 진정한 중생구제력은 지식이나 재주가 아니라 맑고 진실한 생활로 스스로를 지켜 나아가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7>

선사의 공안과 말이라는 감옥 (下)

이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존재(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은유에 불과하여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에 말의 탄생은 사물의 질서의 탄생이요, 문화와 문명의 탄생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간을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한 비극의 탄생이기도 하다.

은유는 은유를 낳고, 꿈은 꿈을 낳고, 말은 말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육근(六根)에 의하여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사실적 세상 속에 살면서 마치 이것이 전부라고 믿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된 나, 진리의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은유·말·사물의 세계를 버리고 ‘그 자체’를 체득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이렇듯 ‘그한놈’을 알기 위해 말을 떠나야 하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없어 주객이 없으며, 생사도 없고 물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며 전체라 해도 잘못되기에 말 없음, 그것은 참선 수행의 첫걸음이며, 말 떠남은 참선의 기본이 된다.

이제 선사들의 화두·공안이 왜 그렇게 비논리적인 황당한(사물의 질서로부터 볼 때)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말은 결국 단순한 상징과 은유이기에 한 모금으로 장강의 물을 마시라니, 수미산이 거꾸러진다니, 등등의 이런 황당한 말들이 지극히 자상한 도리가 되니 부디 의심하지 말고 이미 듣고·믿고 있는 말의 세계를 하루 빨리 놓아 버리고 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참나’ 발견은 사물의 세계 버리는 것

세상 모든것 허망한 그대로 ‘진리’

는 것과 ‘참소유상 개시허망’은 표리(表裏)의 관계이자 동전의 양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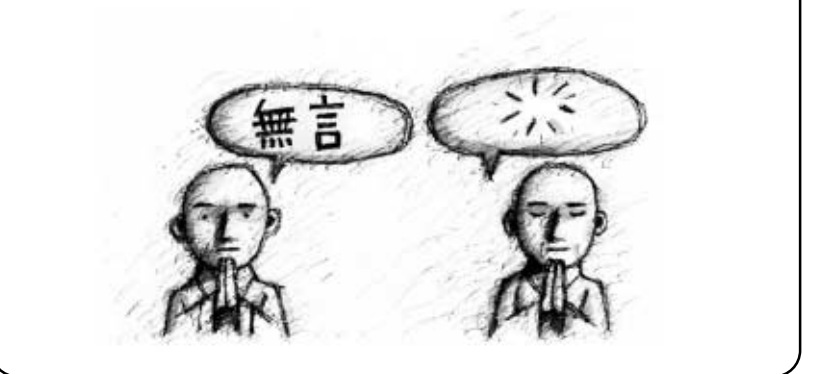
그렇기에 서양의 합리적 이성의 출발점을 이룬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던 것이고, 꿈속의 나비를 말하며 어느 쪽이 자신인지 되물었던 장자 역시 그 양쪽 역시 꿈에 불과함을 못 보았을 뿐이다.

특히 말은 말하는 나·주체와 너·객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내 안에서의 혼잣말이라도 말과 더불어 말에 의존한 생각은 곧 대상을 지닌 분별이요 집착이며 욕망의 한 발현이다. 인류의 문화·문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곧 인간 욕망의 한 단면이요 표현에 불과함을 보게 된다. 본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실의

그러나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꿈과 같은 이 사물의 세계 역시 진리의 한 얼굴이라는 점이 다. 육근(六根)이라는 우리가 지닌 조건에 의해 진리의 한 단면을 사실이라는 믿음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물·비유 역시 그러한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로 진실·실상인 그 자체와 또 다른 의미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기는 해도 알고 보면 이것이 그대로 진리의 한 모습이다. 처

처물물 모두가 화두가 되고, 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부처의 설법이 되는 것이기에 알고 보면 이 세상에 한마디 더 할 것도 없다. 각각의 모습으로 잠자고 밥 먹고 생업에 열심인 것 외에 무엇을 한 단면이요 표현에 불과함을 보게 된다. 본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실의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역학교실



갈수록 불교 경전이 많이 소개되어 번역되고 연구되면서, 불교 사상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이해도 깊고 넓어졌다. 그런데 그럴수록 혼란도 더해갔으니, 많은 경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니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이런 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정리해서 단언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던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정보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문화자에게 문명이 뭐냐고 묻거나 역사학자에게 역사가 뭐냐, 종교학자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물어본 사람에게 따라서 알아듣도록 입으로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대답하는 사람 입에서는 어느 답변이건 문화, 역사, 종교의 복잡한 속내를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대개 들건보다는 인간사, 즉 사람의 일, 사람의 사정이 앞면 알수록 그처럼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부러지게 말해서 뭐냐는 물음은 석가모니께 던지는 것이



선의 세계 ④

직지인심-3

경전 연구

가장 좋겠지만, 석가모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 살아있는 고승대덕들께 여쭙어본다고 하자. 갖가지 답변이 다 나올 것이다. 경전을 인용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는 거야’라고 쉽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나아가 사상제

무진 예를 썼다. 어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심지어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대목들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해명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발전한 것이 이른바 교상판석(敎相判釋)이

말씀한 것이라고 판정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남에 따라 종파도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의 일생에 따라 어떤 경전은 초기에 설한 것, 어떤 경전은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한 것이 열반경이니 열반경이 아무래도 그 가르침의 최고봉이라고 보는 열반종이 생겼다. 아니다, 묘법연화경이 궁극적인 가르침을 담았다. 아니다, 화엄경이다 등등 어느 경전을 궁극의 가르침으로 보는가에 따라 종파가 생겼는가 하면, 공도리(空道理)를 열쇠로 하여 모든 교리를 풀어내는 데 주력하는 종파도 있고 무명(無明)을 일으키는 의식(意識)의 구조와 작용을 파헤쳐 무명을 떨치는 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종파도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불교는 인도의 부파불교 시대에 이어 이른바 종파불교를 꽃피우게 된다. 나중에 선종이 그 모든 종파를 교종이라고 싸잡아 부르면서 퍼부은 비판의 핵심은, 경전 공부에 매달려 다보니 점차 자기가 직접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일은 뒷전에 둔다는 것이었다. 이번 회도 어느새 지면이 다 차버렸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잇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가르침의 견해차가 종파불교 꽃피워

(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연기법(緣起法), 공도리(空道理) 등등 불교의 요체로 그때 그때 거론할 것이 선택하는 데 따라 무궁무진하게 많다.

다양한 경전과 그 밖의 문헌이 쏟아져 들어와 번역되고 보급되면서 중국의 불교 사상가들은 그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불교의 핵심을 간파해나기 위해

다. 말 그대로 가르침의 모양새를 판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어떤 가르침은 초기에 사람들이 견해가 얽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방편으로 쉽게 설명하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그런 줄 알고 이해해야 하고, 어떤 가르침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꽤나 조여가 깊어진 뒤에 비로소 당시의 뜻을 다 담아

제 5기 선 심리상담 · 명상지도자 양성 및 특수과정 모집

①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란?
현대물질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하지만 참나를 잃고 혼돈 속에서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 붕괴와 각종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안신)와 불안심리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대체의학으로 정신심리요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에서는 참선수행과 명상호흡, 불교적 소양, 정신분석, 심리학, 대체의학 등을 연구하여 인간 심층심리에 관여하고 있는 불안한 음성적인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이 심리상담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최상의 정신심리치유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선 심리상담명상교육'이라 하고, 이 전문가들을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② 주요 교과
▶ 불교학 개론
▶ 선 심리치료학 개론
▶ 무이선무명상호흡법
▶ 참나 찾기 특수프로그램
▶ 금강경 능엄경의 선 심리
▶ 선불교와 요가심리
▶ 동양적 통합심리치료법
▶ 청소년 임상심리
▶ 유식과 심리치료
▶ 사이크 심리치료

③ 교과 일정 (일반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11:00~12:30	9월 4일~12월 18일(4개월)
특 수	수시모집(15명 이하, 3박 4일, 수련형)		

상담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 마음의 전화

영험도량

픽미승 예언

불보살심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간(肝)의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삶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④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것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④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을 내어낸 뒤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데 왕겨가 더 타들어 가지까 교박 8-9이 걸린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은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